

圖書館員과 倫理

—徹底한 自己 認識만이 向上的 길이다—

張 一 世

序 言

圖書館問題를 이야기 할때 그 大部分의 主題는 技術問題에 關連된것이 많다. 그 만큼 技術問題는 圖書館을 運營하는데 있어서 매우 무거운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證左일것이다.

圖協月報가 發刊된지 이미 1年이 지났건만 圖書館員의 倫理問題에 對한 論議는 한번도 掲載된적이 없는데比하여 每號마다 여러가지의 技術問題만은 如前히 실리고있다는것도 좋은 例일것이다.

이렇듯 技術問題는 圖書館運營과 不可分の 關係를맺고 있는것은 否認할수 없는 事實이지만 우리가 冷徹히 圖書館의 根本問題들을 생각할때 技術問題보다도 圖書館員의 倫理問題가 보다 重要的 核心이라는것을 우리는 깨닫게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道德水準이 그國家의 文化度を 表示하는것과 같이 圖書館員의 倫理問題는 그 圖書館의 水準을 곧 말하여 줄 뿐만 아니라 圖書館本來의 使命完遂와 直結됨과 同時에 圖書館員의 自己地位 向上的 絕對的인 要素가 되는것이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倫理問題를 좀더 慎重히 熟考하여야 하며 이에 對하여 자주 論議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믿고있는 바이다.

어떠한 圖書館이던지 圖書館이 目的하는바는 다를것이 없으며, 各級 圖書館의 使命 亦是 對象을 달리할 뿐 同一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잘알고있다. 各級圖書館에서 各種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圖書館의 目的이라든지 使命이라든지에 對하여는 너모도 많이 들어왔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여가서 再論할必要를 느끼지않는다.

그러나 그렇도록 훌륭한 目的과 崇高한 使命을 가지고있는 各級圖書館에서 奉仕하고 있는 여러 圖書館員이 果然 그 目的과 使命에 符合된 奉仕를 지금까지 해왔으며, 各 사람 사람이 自己의 맡은바 責任과 義務를 充分히 認識하고 完遂해 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問題라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다하기 前에 나무일에 對하여 批判하기를 좋아한다. 目的과 使命을 每日 같이 부르짖고, 이런일은 이렇게, 저런일은 저렇게 해야한다고 야단 하면서 自己가 해야 할일은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는것이 아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보다니은待遲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倫理 라

는것을 再考치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國家에 對하여는 國家道德이 要請되고, 職業에 對하여는 職業倫理가 必要하듯이 圖書館에 職을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圖書館員으로서의 倫理”가 必要하다는것은 너모도 當然한 일이다. 筆者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圖書館員의 倫理問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一般的인 倫理問題와는 그 性質이 좀 다른것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圖書館員의 倫理”를 筆者는 平凡하지 않은곳에서 찾고자 하는것은 아니다. 이 倫理의 源泉은 바로 圖書館의 目的과 使命속에 充分히 表現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徹底한 奉仕의 精神을 가지고 圖書館을 充分히 活用할수 있도록 可能한 모든 手段과 方法을 講究하고 利用者들의 손과 발이 쉴 때 비로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義務와 責任을 다했다고 할것이다.

그러기 爲하여는 우리들은 우리들이 차지하고있는 우리들의 立場을 自覺하고, 우리들의 할 일을 再認識함으로써 自己의 人格陶冶에 더욱 努力하여야 할것은 勿論, 보다 나은 奉仕를 함으로써 우리들 自身의 位置를 向上시키도록 힘써야할것이다. 이러한 結果로써 우리들은 各級圖書館 經營者들의 우리에 對한 再評價와 再認識을 期待할수 있으며 이 再評價와 再認識은 우리나라 圖書館員의 題躍의인 發展을 이룩하기 爲하여는 絕對的인 하나의 要件이 되는것이다.

圖書館職이 醫師나 法律家와 같이 하나의 專門職이라는것은 이미 本報를 遙하여서도 이야기 된바 있지만⁽¹⁾醫師가 醫師로서의 倫理를 지키지 못했을 때 同僚醫師

들로부터 呪詛를 받는것과 같이, 圖書館員으로써 지켜야 할 倫理를 지키지 못했을 때 마땅히 同僚圖書館員으로부터 非難을 받아야 할것은 當然한 일이 아닐까?

專門職으로서의 圖書館員이 必要로하는 倫理를 條文化하여 하나의 規則으로서 만들어야 한다고 이미 1903년에 Miss Mary Plummer가⁽²⁾提唱한것은 果然 圖書館이 發達한 美國이니 만큼 當然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들로서는 注目치 않을수 없는 事實이며, 그後 1929년에 美國圖書館協會에서 正式으로 “圖書館員의 倫理”를 作成한바 있고⁽³⁾다시 1938년에는 이 倫理要綱이 美國圖書館協會 倫理要綱委員會에서 正式으로 採擇 頒布하기에 이르렀다는것은⁽⁴⁾驚嘆치 않을수 없는 일인 同時에 하나의 專門職으로서의 圖書館員이 되기爲하여는 絕對로 必要한것이다.

即 美國圖書館協會에서 正式으로 위에 이야기한 倫理要綱을 制定, 頒布하였다는 事實은 專門職으로서의 圖書館員의 資格向上과 圖書館員의 勤務條件의 改善은 勿論 圖書館員이 責任當局이나, 地域社會에 對한 義務와 責任을 規定 지음으로써 보다 나은 社會에의 奉仕를 하기 爲함은 말할 것도없다. 이 倫理要綱은 前文과 本文으로 構成되었는데 前文은 3項으로 이루어졌고, 本文은 5條로서 4項에서 28項까지로 되어있다.⁽⁵⁾

이 要綱이 發表된後 많은 圖書館에서는 이것을 土壘로하여 各自 圖書館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倫理要綱을 作成하기도 하였으나 그 內容의 本質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는것이다. 여기에서 美國國協의 倫理要綱을 全部 紹介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筆者는 우리가 經驗한바를 士豪로하고, 우리들이 가장 必要로하는 몇가지를 들어서 論議해 보고자 하는바이다.

첫째 自己 職業에 對하여 忠實하여야 한다.

自己가 選擇한 圖書館職을 天職으로 생각 해야 한다. 天職으로 생각할수 없는 職業이라고 느낀다면 自己의 性格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單 職業으로 빨리 轉換하는 것이 兩쪽에 좋다.

우리들의 社會事情이 職業選擇 또는 轉換 모두가 如意치 못한것은 事實이지만 自己 職分에 對하여 아무 誠實性없는 者들로 因한 여러가지의 障害를 생각한다면 우리 圖書館員들은 自己 職業에 對하여 깊은 認識이 있어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월슨氏와 타우바-氏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⁹⁾ 圖書館員은 다른 專門職員과는 달리한 사람 한 사람이 圖書館의 代表者이고 또 그 圖書館의 解說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圖書館員의 무거운 責任과 義務를 各自가 自覺한다면 自己가 비록 남 보이지 않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疎忽히 할수는 없을 것이다. 圖書館에서 다루는 모든 事務가 華麗한것이 되지 못한 關係로, 또한 單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띄이지 않는 일이므로 無意識中에 自己 事務를 輕視하는 傾向이 多分이 있는것은 事實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맡은 各自의 작은 일이 서로 連結되고 結合되어서 비로서 圖書館 本來의 目的을 達成할수 있다는것을 잘알아야 한다. 受入事務에서 부터 整理를 거쳐 카아드의 排列, 書架의 檢索에 이르기까지 모두 숨은일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다싶이 그다 어떠한 일이라도 輕率히 할수있는 일이 있는가? 不注意나 또는 無誠意에서 생기는

結果, 即 例를 든다면 函장의 카아드 排列이 제대로 못되었을境遇 우리는 영영 그 카아드가 代表하는 圖書를 우리 圖書館에서 찾을수 없게된다는 事實을 생각해야하며, 親切 第一主義로 나아가야 하는 圖書館員 하나 하나의 行動이 顧客들의 利用을 阻害하고, 將來의 利用意慾마저 減退시키는 不親切로 一貫해 있는 現實이라든지 우리는 自省해야 할것이다.

自己 職分을 忠實히하기 爲하여는 다른 職業과는 달리 恒常 自己自身이 工夫하고 研究하여야 한다. 단지 自己에게 割當된 事務를 完遂한다고해서 有能한 圖書館의 代表者나 案内者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圖書館 利用者에게 忠實하여야한다.

圖書館은 充分한 活用이 있어서만 비로서 圖書館으로서의 구실을 할수 있다. 圖書館의 三要素인 圖書館資料나 圖書館員 및 圖書館施設等은 모두 圖書館을 活용하기에 必要로하는 必需的인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것들은 利用하는 사람이 있는것을 前提로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을 利用하는 顧客들에 對한 忠實성이야말로 가장 重要的 것中的 하나이다.

圖書館員들이 그 顧客들에게 對한 態度 如何로써 그 圖書館의 將來가 決定지어진다고 해서 지나친 말일까?

우리들은 現在 各級圖書館에 職을 두고 있다. 그러한 우리들이건만 單 圖書館에 이따금 갔을때 느끼는것은 不快한 感이 먼저 앞을 선다. 왜 그럴까?

圖書館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顧客들의 地位나 人種이나 宗派에 關係없이 우리 圖書館員들은 가장 公正하여

야 하며, 協助的이어야 하며 또 親切하여야 한다. 세로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圖書館의 精神을 親切하게 紹介하는 解說者가 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親切과 公正한 協助는 顧客들에게 圖書館에 對한 親密感을 갖게 할것이며, 圖書館에 찾아오는것을 매우 즐겁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問題의 解決을 圖書館에서 求할것이다. 圖書館員의 顧客에 對한 親切과 바른 禮節과 奉仕의 精神은 顧客의 數를 倍加할것이며, 이 結果는 그 圖書館 自體의 發展은 勿論 그 地域社會의 全體의인 向上에 決定的인 要素가 될수 있다는것은 우리들이 쉽사리 알수있는일이다.

우리는 가끔 新聞紙上을 통해서나 라디오를 通하여 우리 韓國 사람들이 特히 外國人들에 對한 때 무뎡뎡하고 不親切하고 親密感이 없는 國民이라는 것을 보고 듣는다. 오랫동안 걸친 抑壓된 生活과 不安한 社會事情에서 오는 結果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自身이 우리를 行動을 도리켜 생각해 보아도 너무 無表情하고 쌀쌀한것이 틀림이 없다. 官廳에 가보아도, 學校 事務室에 가보아도 우리가 맞다드는 것은 不親切 뿐이다. 심지어 教室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先生님과 學生들 사이까지도 무뎡뎡하고 無表情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無表情과 不親切에서 벗어나야 한다. 顧客을 爲하여는 根氣있게, 그러나 禮節바르게 親切을 배울줄 알아야 한다.

親切한 버스 車掌을 오랫동안 만났을때의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호뜻함, 길을 묻는 시골 할머니에게 親切하게 길을 案内한後에 느끼는 내 마음의 기쁨은 이루

形言할수 없는 滿足感을 우리에게 준다. 하물며 知識을 渴求하는 圖書館 顧客들에게 그들이 解決코자하는 모든 知識의 源泉으로 案内했을때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야 얼마나 큰 것일까! 그들은 親切한 버스 車掌 보다도 圖書館員들을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圖書館員들이야말로 그들의 親切한 案内者라고 생각 할것이다.

이러한 親切에서 오는 結果는 여기서 세삼스러히 이야기 할 必要도 없이 顧客의 數를 增加시킬 것이고, 그 圖書館이 보다 많이 利用됨으로써 그 地域社會의 向上이 있을것이며, 보다 넓은 學問의 研究가 盛行되고 아울러 顧客과 圖書館員뿐만 아니라 모든 顧客들 사이도 親切로 가득찰것이며 그 社會 자체도 明朗해질것은 明白한 일이다.

親切하므로써 自己가 느끼는 滿足感도 매우 크려니와 親切에서 오는 反應도 곧 나타날것이다.

第1도 親切, 第2도 親切, 第3도 親切 이것이 圖書館員의 motto라야한다.

셋째 自己가있는 圖書館에 對하여 忠實 하여야한다.

위에서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圖書館의 모든 施設, 資料, 職員等은 모두 圖書館 利用者들을 爲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에서의 모든 業務는 亦是 顧客들을 爲한것이어야 함은 勿論이다. 좀더 積極的으로 나아가서 顧客들이 많이 찾아 오도록 能動的인 일을 해야 한다.

위의 効果를 걸기 爲하여는 恒常 圖書館 全般에 걸쳐 仔細히 觀察하고 細密히 檢討批判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우리를 圖書館의 發展을 期約할수있다. 꾸준한 努力과

부지런한 研究는 빠르지는 못할망정 着實한 結果를 우리에게 줄것이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現實가운데서 第一 큰 難關은 所謂 圖書館을 맡고 있는 責任者들이 圖書館에 對하여 매우 沒理解하다는 點이다. 오히려 責任者 보다도 一線事務를 擔當한 여러 젊은 館員들이 圖書館을 더 잘 理解하고있는 것이 事實이다. 圖書館學이라는 學問이 이 나라에 輸入된지 不過 몇年 안되고 또 圖書館活動이 거의 없는 우리의 現實에서 오는 當然한 現象일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해서 우리는 座視하고만 있을수는 없는일이다. 꾸준한 努力과 眞實한 態度로서 責任者를 說得시키고 한거름 한거름 着實한 前進를 가져오기에 온갖 힘을 다하는 것 만이 우리의 앞날에 빛을 가져올것이다.

그러기 爲하여는 圖書館員 各自가 圖書館 全般에 걸쳐 恒常 注意하고 研究함과 同時에 各自의 業務를 着實히 完遂하는 路밖에 없다. 勤務時間에 雜談을 하거나, 小說을 읽거나, 時間勵行을 안하거나 하는 따위는 마땅히 是正 되어야한다. 더욱이 勤務時間중에 여기저기 나타나는 館員을 이다꿈 붙때 그 圖書館이 果然 잘 運營된것인가 하고 疑心할뿐만아니라 그 館員 自體가 可憐해지고만다.

그러한 行動을 하는 사람들이 自己業務에 對하여 忠實할수 있을것이며, 또 自己가있는 圖書館을 爲하여 精神을 기우릴수 있을것인가? 이렇게 不忠實한 館員들이 있는 圖書館에서 어떤 效果를 기대한다면 이는 마치 山에 올라가서 바닷고기를 求하는格과 마찬가지로 일것이다.

이 밖에도 例를 들자면 限이 없이 많다. 우리는 爲先 圖書館이 存在하고 있는

理由를 잘 생각하고 이의 發展을 爲해 조곰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돌린다면 거기에서 벌써 조그마한 效果일지라도 곧 얻을 수 있을것이다.

圖書館의 清掃, 顧客에 對한 親切, 業務에 對한 檢討, 館員 相互間의 連結等等 改善할問題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結 言

위에 이야기한것 외에도 여러가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것이 많다. 例를 들자면 同僚와의 關係라든지 地域社會에 對한 義務, 또는 우리가 每日 다루어야 할 圖書館 自體에 對한 것 等이다.

紙面關係로 좀더 詳細히 이야기 할수 없는것을 遺憾으로 생각하지만, 要約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倫理問題를 지금까지 몰랐던것이 아니라는點, 能히 우리들이 實踐할수 있었을것이라는點, 또 萬一 우리들이 實踐 했었다면 보다 나은 圖書館으로서의 發展이 있었을것이라는點들에 對하여 否定할수있는 館員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것을 筆着는 斷定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바이다.

“圖書館”하면 “教育”을 聯想하고, “教育”이라면 그래도 腐敗한 社會에서도 尊重을 받는것이 事實이라면 教育의 綜合道場인 圖書館이야말로 무슨 意味에서든지 教育道場의 標本이 되어야 할것이다. 圖書館이 모든 人種, 宗派, 黨派를 超越하여 가장 公正하게 奉仕할수 있는 곳이라는것 亦是 위에서 指摘한바이지만, 이것을 實踐하기 爲하여는 爲先 圖書館을 爲하여 일할수있는 有能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는 機關이 던지 그렇지만 機關長의 親知, 親戚들의 救濟處로서 그 機關이 利用

되어서는 아니된다. 圖書館은 더욱 그러하다.

個人主義가 徹底한 美國에서까지 이러한 人事弊端을 막기爲하여 館規에 親戚을 採用못하도록 規定한事實이 있는(7)것을 우리 여러 圖書館을 비롯한 各機關 責任者들이 안다면 참으로 놀랄것이다. 이것은 先進國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圖書館이 그의 目的하는바를 忠實하게 할수있도록 하기爲한 施策中의 한가지 例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現實과 녀르도 懸隔한 差異가 있는것이 限없이 부끄럽다.

우리가 公民課目이나 修身時間을 줄여 하지 않은것같이 이렇게 딱딱한 倫理問題를 이야기하는것 自體가 매우興味롭지 않다는것을 筆者는 勿論 잘안다. 그러면서도 왜 이 問題를 深刻하게 取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 하는대는 上述한바와 같은 여러가지 理由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各級圖書館들의 歷史가 한해 한해를 넘김으로서 벌써 여러 해를 넘겼다. 우리들이 認識하지 못하는가운데 무언가 흐르고있다. 時期的으로보아 오늘날까지는 앞으로 있을急速의인 發展을爲한 準備期間이 있어야하며, 訓練期間이 있어야 했을것이지만 所期의 成果는 걸우지 못한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時間은 흐르고있으며 時代는 새로운 얼굴을 要求하고 있고 또 急速한 圖書館 膨脹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不可避한 時代의인 要請에 對應하기爲하여 우리 自身부터 精神的인 武裝을 갖추 必要를 切實히 느끼게 된 것이다. 우리들이 精神을 가다듬지 못하면 우리의 發展은 期待할수없다. 또 우리에게 期待하지도 않을것이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時期에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人들에게 失望을 주지않아야한다. 우리들은 바로 이時代의 寵愛를 온 몸에 지니고있는 것이다. 이事實을 우리는 自覺해야 한다. 얼마나 榮光스러운 일일까!

우리나라 圖書館의 앞날은 우리들 双肩에 달려있다는 事實을 充分히 認識하고 우리가 할일을 各自 忠實히 完遂할것을 바라 마지않는바이다.

- 註 1. Burgss, Robert “미국의 도서관 직 교육” 도협월보 v. I. no.3, p. 7~9, 1950年 5月號.
2.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p.307.
3. Lyle. 前掲書 p.307.
4. Lyle. 前掲書 p.307.
5. Lyle. 前掲書 p.308~312.
6. Wilson and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2d. ed. p.331.
7.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Staff manual. p.18.

(筆者, 梨花女大圖書館學科講師)